

諸家文獻에 나타난 ‘水’의 意味에 대한 考察

I. 緒論	30
II. 本論	31
1. 管子·水地篇에 나타난 ‘水’	31
2. 芝峰類說의 ‘水’	37
3. 老子에 나타난 ‘水’	40
4. 說文解字에 나타난 ‘水’	41
5. 釋名·釋天에 나타난 ‘水’	41
6. 周易 乾卦에 나타난 ‘水’	41
7. 錦囊經에 나타난 ‘水’	41
8. 內經에 나타난 ‘水’의 意味	42
9. 本草綱目の ‘水’	42
III. 結語	49

諸家文獻에 나타난 '水'의 意味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 의 학 과
김 준

1. 緒 論

물은 도처에 존재하는 無色 無臭의 液體이며,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라고 한다¹⁾. 일찌기 그리이스 자연철학의 시조 탈레스는 '물은 萬物의 根源'이라 하여 宇宙의 根源과 自然의 理致를 물로써 설명하였고²⁾, 東洋에서도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管子》에서는 '물은 땅의 血氣로 마치 피가 인체의 筋脈을 통하여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물은 모든 사물을 具備하게 한다.'라고 하였다³⁾. 지구상의 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45억년 전에 화산활동으로 지구 내부에 있던 뜨거운 기체가 분출되어 탄생했으며⁴⁾ 그 양은 1.46×10^{18} ton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

중 97%는 바닷물의 형태로, 2%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만이 우리가 이용하는 담수이다⁶⁾. 이렇듯 지구표면의 약 70%가 물로 차있고 지표면을 등글게 매운다고 가정하면 地表는 평균 3천m의 깊이로 바닷물에 잠긴다⁷⁾.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⁸⁾은 사람의 혈액과 바닷물의 주요성분을 비교한 결과 생명은 바다에서 발생했고 '생명의 진화란 결국 물을 둘러싼 조건이 변화하고 특수화한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인체에 있어서도 체질이나 사람에 따라

2) 天壽自然健康研究所 編著, 權肅杓 監修; 물, 서울, 공부방, 1995, P 25.

3) 漢文大系 卷21 管子叢註,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卷第十四 P 1.

4) 진성일; 생활속의 과학이야기, 동아일보 95년 9월 5일.

5) 전무식; 6각수의 수수께끼, 서울, 김영사, 1995, P 17~18.

6) 이태형; 물길따라 내려온 물 이야기,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1995, P 32.

7) 전무식; 6각수의 수수께끼, P 18.

8) 전무식; 6각수의 수수께끼, P 20~21.

1)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1, P 1285.

70~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가지 필수적인 생리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本論考에서는 《管子》와 《芝峰類說》을 중심으로 그 밖의 제가문헌을 살펴 '水'에 대한 意味를 정리,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論

1. 管子·水地篇에 나타난 '水'¹⁰⁾

地者는 萬物之本原이요 諸生之根菴¹¹⁾也니 美惡賢不肖 愚俊之所生也요 水者는 地之血氣로 如筋脈之通流者也니 故曰 水具材也라

<譯>

땅은 만물의 本原이요 모든 생명의 根源이니 (세상의 모든)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 현명함과 미련함, 어리석음과 빼어남을 낳는 것이다.

물은 땅의 血氣로 마치 피가 인체의 筋脈을 통하여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물은 모든 사물을 具備한다고 말한다.

何以知其然也오?

曰 夫水는 淖弱¹²⁾以清 而好酒人之惡하니 仁也요 視之黑而白하니 精也요 量之不可使¹³⁾概¹⁴⁾라도 至滿而止하니 正也요 唯¹⁵⁾無不流나 至平而止하니 義也라 人皆赴高나

9) ①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대사작용을 높임. ②혈액과 조직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함. ③영양소를 용해시키며, 이를 흡수·운반해서 필요한 세포로 공급해줌. ④체내의 노폐물을 배설시킴. ⑤혈액을 중성이나 약알칼리로 유지시킴. ⑥체내의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을 조절함. (天壽自然健康研究所 編著, 權肅杓 監修; 물, P 26~27.)

己獨赴下하야 卑¹⁶⁾也니 卑也者는 道之室이요 王者之器¹⁷⁾也며 而水以爲都¹⁸⁾居라. 準也者는 五量¹⁹⁾之宗也요 素²⁰⁾也者는 五色之質也요 淡也者는 五味之中也니 是以로 水者는 萬物之準也요 諸生之淡²¹⁾也요 達²²⁾非得失之質也라

<譯>

어찌해서 그러한지를 압니까?

대저 물은 부드럽고 약하면서 깨끗하여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좋아하므로 어진 덕목을 갖춘 것이요, 깊은 물은 보기에 검푸르나 바닥까지 비쳐보임으로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精微로운 것이며, 容量을 잴때 平木을 쓰지 않더라도 가득차면 더이상 늘어나지 않으니 바른 것이요, 비록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나 평평한 곳에 이르면 그치니 의로운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을 향해 달려 나가나 물은 오직 아래를 향해 나아가나

10) 漢文大系 卷21 管子纂註,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卷第十四 P 1~7.

11) 菴: 古本에는 '苑'으로 되어있고 《讀書雜誌》에 실려있는 王引之의 說에는 '亥'로 고쳐져 있다. '本原'이나 '根菴'은 모두 '依託하여 생겨나는 곳'을 의미한다. 菴: 우거질원, 등산원, 쌓일음. 亥: 풀뿌리해.

12) 淖弱(작약): 貞淑함, 혹은 柔弱함. 여기에서는 薄約의 뜻으로 쓰임. 淖: 진흙노, 앞전할작.

13) 使: 여기에서는 '用'의 뜻으로 쓰임.

14) 概: 평미래개. 平木

15) 唯: 여기에서는 '雖'의 뜻으로 쓰임.

16) 卑: 낮출비. 謙遜함.

17) 器: 그릇으로 쓸 기. 적재적소에 씬. '用'과 같이 쓰임.

18) 都: 모일도. 여기에서는 '濶'와 통하는 의미. 濶: 웅덩이저, 필저.

19) 五量: 度, 量, 衡, 準, 繩. 여기에서 가장 規準이 되는 것은 準이 됨.

20) 素: 흰소, 무늬없을소. 여기에서는 색깔이 없음을 말함.

21) 淡: '痰'과 通用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津液'을 의미함.

22) 達: 丁士頤의 說에는 '躋'로 고침. 躋: 옮을위.

謙遜한 것이요, 겸손이라는 것은 道가 깃들어 있는 곳이며 천하에 왕노릇 할 사람이 써야 할 덕목으로 물은 바로 이 겸손에 귀여서 모여있는 것이다. 물을 이용해 수평을 재는 準은 五量중에서 規準이 되는 것이요, 물의 색깔이 없는 것은 五色중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며, 물의 淡味는 五味중의 치우침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물은 만물의 準則이 되고 모든 생명의 津液이 되며 옳고 그름과 得失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是以로 無不滿하고 無不居也하며 集於天地 而藏於萬物하고 產於金石하야 集於諸生 故로 曰水神이라. 集於草木하야 根得其度²³⁾ 하고 華得其數하며 實得其量이라. 鳥獸得之 하야 形體肥大하고 羽毛豐茂하며 文理²⁴⁾ 明著라. 萬物莫不盡其幾하야 反其常者는 水之內度適也라.

<譯>

이렇듯 물은 만물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채우지 않는 것이 없고 자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地氣가 上昇하고 天氣가 下降하여 비와 눈이 내리기 때문에 물은 天地間에 모여 있는 것이며, 水氣는 만물에 저장되어 있고 金石에서 나오며 모든 생물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水神'이라고 말한다. 水氣가 草木에 모여서 뿌리의 크기는 줄기와 서로 알맞게 되고, 꽃의 숫자도 나무의 크기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열매의 양도 나무와 서로 적당하게 맞게 된다. 들짐승과 날짐승이 水氣를 얻게 되면 形體가 肥大해지고 털이 윤택하고 풍부해지며 색깔과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된다. 만물은 水氣가 조화롭게 생명을 이루고자 하

23) 度: 정도도. (알맞은 한도)

는 조짐에 다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생명이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水氣가 내부의 법도에 따라 적당히 潤澤하게 하기 때문이다.

夫玉之所貴者는 九德²⁵⁾出焉하나니 夫玉은 溫潤以澤하야 仁也요 鄰²⁶⁾以理者하야 知也요 堅而不蹙²⁷⁾하야 義也요 廉²⁸⁾而不劓²⁹⁾하야 行也며 鮮³⁰⁾而不垢하야 絜³¹⁾也요 折而不撓³²⁾하야 勇也요 瑕適³³⁾皆見하야 精³⁴⁾也요 茂³⁵⁾華³⁶⁾光澤이 竝通而不相陵³⁷⁾하야 容也요 叩之其音淸搏³⁸⁾徹遠하야 純而不殺하니 辭也라. 是以로 人主貴之하야 藏以爲寶하고 剖以爲符瑞³⁹⁾하니 九德出焉하니라.

<譯>

모름지기 옥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九德이

24) 文理: 여기에서는 짐승의 가죽과 깃털에 드러난 무늬를 말한다.

25) 九德: ①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아홉가지 德. 즉, 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彊而義. ②忠, 信, 敬, 剛, 柔, 和, 固, 貞, 順.

26) 鄰: 이웃린, 이웃할린, 보필린, 수레소리린, 행정구획린. 璘의 借字. 璘: 옥빛린.

27) 蹙: 줄축, 줄일축, 닳칠축, 고생할축, 쫓을축, 재축할축, 삼갈축, 찜그릴축, 찰축, 줄어들축. 여기에서는 '促'의 의미임. 促: 질박할축, 급할축. 俊에 人을 빼고 皮를 우변에 붙임: 들준, 주름준, 주름잡힐준.

28) 廉: 날카로울림, 모서리림.

29) 劓: 상처낼귀.

30) 鮮: 고울선, 아름다울선, 날것선, 적을선.

31) 絜: 짙혈, 깨끗할결.

32) 撓: 휘요, 꺾일요.

33) 適: 여기에서는 適의 뜻. 適: 티적.

34) 精: 여기에서는 '情'의 의미.

35) 茂: 우거질무, 빼어날무, 힘쓸무.

36) 華: 빛화. 光輝.

37) 陵: 언덕릉, 가벼이여길릉, 업신여길릉.

38) 搏: 여기에서는 '揚'의 뜻으로 쓰임.

39) 符瑞: 符祥과 같음. 상서로운 징조.

있기 때문이다. 옥은 (얼음과 달리 빛이 나면 서도) 따뜻하고 윤택한 기운을 가졌으므로 仁한 덕목을 갖췄고,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를 가졌으므로 知慧를 갖춘 것이다. 단단하여 주름이 잡히지 않으니 義로운 덕목을 갖추었고, 모서리가 나 있어도 다른 것을 해치지 않으니 바른 행동의 덕목을 갖추었으며, 곱고 아름다우면서 더럽지 않으니 깨끗한 것이요, 꺾어도 휘어지지 않으니 용맹한 덕을 갖춘 것이요, 옥에는 티가 있어 결함이 있으니 사람의 情理와 같은 것이요, 아름다운 모양과 광채가 아울러 통해 서로 업신여기지 않으니 寬大한 包容力이 있는 것이요, 두드리면 소리가 맑게 퍼져 멀리까지 이르며 純一한 소리가 마지막까지 사그러지지 않으니 선비의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된 사람이 옥을 귀히 여겨 감추어 보배로 삼으며 갈라서 상서로운 징표로 삼으니 옥에는 九德이 있기 때문이다.

人水也니 男女精氣合而水流⁴⁰)形이라. 三月如⁴¹)岫⁴²)하니 岫者는 何오? 曰 五味이니 五味者는 何오? 曰 五藏이니 酸主脾하고 鹹主肺하며 辛主骨하고 苦主肝하며 甘主心이라. 五藏已具而後生肉하니 脾生肉⁴³)하고 肺生骨하며 腎生腦하고 肝生革⁴⁴)하며 心生肉이라. 五肉已具而後發爲九竅하니 脾發爲鼻하고 肝發爲目하며 腎發爲耳하고 肺發爲竅⁴⁵)라. 五月而成하고 十月而生하니 生而目視하며 耳聽 心慮하니라. 目之所視는 非特山陵之見也요 察於荒忽⁴⁶)하며 耳之所聽은 非特雷鼓之聞也며 察於淑淑⁴⁷)하고 心之所慮는 非特知於麤粗也며 察於微眇⁴⁸)하니 故로 修要之精이라.

40) 流: 布也 滂유.

<譯>

사람도 水氣로 이루어진 것이니 (胎兒가 처음 생길때는) 男女의 精氣가 합해져서 水氣가 형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胎兒가 3개월에 이르면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했지만 음식의 맛을 볼 줄 아는 기운을 가졌으니 음식의 맛을 볼 줄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五味이다. 五味는 무엇인가? 五藏이다. 酸味는 비장을 주관하고 鹹味는 폐장을 주관하고 辛味는 골을 주관하고 苦味는 간을 주관하고 甘味는 심장을 주관한다.

五藏이 이미 구비가 된 이후에 五肉을 생하니 비장은 隔을 생하며 폐는 骨을 생하고 신은 腦를 생하고 간은 皮膚를 생하고 심장은 肉을 생한다.

五肉이 이미 구비가 된 이후에 九竅가 발생하니 비장이 코를 발생하게 하고 간은 눈을 발생하고 신장은 귀를 발생시키고 폐는 구멍을 발생시킨다.

五個月이 되면 形體를 완성하고 十個月이 되면 태어나게 된다. 태어나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단지 산이나 구름같은 큰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것도 보이며, 귀로 들리는 것도 단지 우뢰나 북소리 같은 큰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며, 마

41) 如: 여기에서는 어조사 '而'의 용법으로 쓰임.

42) 岫: 짐을저. 여기에서는 음식의 맛을 봄의 뜻.

43) 隔: 막을격, 막이격, 딸격.

44) 革: 여기에서는 '皮膚'를 말함.

45) 竅: 여기에서는 '口와 前陰 및 後陰'을 말한다.

46) 荒忽: 어둑어둑하여 뚜렷하지 않은 모양.

47) 淑淑: 한적하여 소리가 없는 모양. 淑: 잘할속, 맑을속, 사모할속, 淑: 서늘할추, 응덩이추, 근심할추, 낮을초, 졸을초, 쌓일초.

48) 眇: 애꾸눈묘, 외눈질할묘, 작을묘, 멀묘.

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단지 크고 거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생각까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묘한 것을 닮는 방법이 된다.

是以로 水集於玉而九德出焉⁴⁹⁾하고 凝蹇⁴⁹⁾而爲人而九竅五慮⁵⁰⁾出焉하니 此乃其精也요 精靈濁蹇⁴⁹⁾하야 能存而不能亡者也라.

<譯>

그러므로 水氣가 玉에 모이게 되면 九德이 나오게 되고, 精液이 모여 머무르면 사람이 되어 九竅와 五慮가 생기게 되니 이러한 것은 모두 水氣의 精粹로 이루어진 것이다. (옥과 사람은) 水氣의 精粹 중에 거칠고 탁한 기운이 머물러서 능히 존재하며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된다.

伏聞⁵¹⁾하야 能存而能亡者는 蒼⁵²⁾龜與龍이 是也라. 龜生於水하야 發之於火하니 於是爲萬物先하고 爲禍福正하니라. 龍生於水하야 被五色而游 故로 神이라하니라. 欲小則化如蠶⁵³⁾하고 欲大則藏於天下하야 欲上則凌⁵⁴⁾於雲氣하고 欲下則入於深泉하야 變化無日에 上下無時를 謂之神이라. 龜與龍은 伏聞하야 能存而能亡者也라.

<譯>

水氣가 드러나지 않게 흘러 혹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없는 것 같은 것은 시초나 거북이나 용과 같은 신령스런 사물이 그것이다. 거북은 水氣로 부터 태어나서 火氣로 인해 미래의吉凶을 밝히는 점괘를 드러내니 이로부터 거북은 만물중의 가장 으뜸이 되며 禍

49) 蹇: 질퍽발건, 머무름, 여기에서는 '停'의 뜻.

福을 결정하는 것이 되었다. 용은 水氣에서 태어났으나 五行을 갖춘 五色을 띠고서 움직이므로 신령스런 동물이다. (용과 같은 신령스런 동물은) 작고자 하면 누에나 나비에벌레 같은 작은 것으로 변화하며, 크고자 하면 천하에 가득차며, 위로 오르고자 하면 구름위에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면 깊은 연못에 들어가며, 하루라도 變化하지 않는 바가 없고 한시라도 위 아래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神'이라고 말한다. (이와같이 신령스런 동물인) 거북과 용은 水氣가 보이지 않게 흘러 생긴 것으로 능히 있다가도 능히 없어지는 것이다.

或世見거나 或世不見者면 生蠶⁵⁵⁾與慶忌⁵⁶⁾라. 故로 潤澤數百歲에 谷之不徙하고 水之不絕者면 生慶忌하니 慶忌者는 其狀若人하야 其長四寸이요 衣黃衣하고 冠黃冠하야 戴黃蓋하고 乘小馬하야 好疾馳하야 以其名呼之면 可使千里外라도 一日反報하니 此潤澤之精也라. 涸川之精者는 生於蠶하니 蠶者는 一頭而兩身으로 其形若蛇⁵⁷⁾하야 其長八尺하야 以其名呼之면 可以取魚鱉하니 此는 涸川水之精也라.

50) 五慮: 耳, 目, 鼻, 口, 心.

51) 伏聞: 伏水가 聞疏하는 것. 聞: 어두울음.

52) 蒼: 혹은 衍字로 생각하여 裴버린 註釋家도 있음. 蒼: 시초시, 가새풀. 엉거시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줄기는 짙을 치는데 솜.

53) 蠶: 나비에벌레촉.

54) 凌: 알음름, 간널름, 없신여갈름.

55) 蠶: 물질을 때 생기는 벌레이름귀. 傳說上의 동물.

56) 慶忌: 傳說上의 水中의 怪物. 本篇 외에도 宋代 太宗의 명으로 編纂된 《太平御覽》, 明代 田汝成이 지은 《西湖遊覽志》에도 나옴.

57) 蛇: 原本에는 (虫변에 也)로 되어 있음. 蛇의 俗字임.

<譯>

혹 삼십년에 한번 水氣가 보이거나 혹 삼십년 동안 한번도 水氣를 보지 못하는 매우 매마른 경우에 螭와 慶忌라는 동물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오랜 가뭄에 마른 연못이 수백년이 흐르도록 계곡의 물줄기가 옹기지지 않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곳에 慶忌가 생겨나게 된다. 慶忌라는 동물은 그 모양이 사람과 같고 크기가 4寸이며 누런 옷을 입고 누런 관을 쓰며 누런 덮개를 이고 있고 작은 말을 타고 빨리 달리기를 좋아한다. 慶忌라고 이름을 부르면 천리 밖의 먼길에도 하루만에 되돌아 오니 이것은 마른 연못의 精氣로 생긴 것이다. 마른 내의 精氣는 螭를 생기게 하니, 螭는 머리가 하나에 몸뚱이가 둘이며 그 형체가 뱀과 같고 크기가 8尺이다. 螭라고 그 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가히 고기와 자라를 잡을 수 있으니 이것은 마른 내의 水의 精氣이다.

是以로 水之精氣濁蹇하여 能存而不能亡者는 生人與玉하고 伏聞하여 能存而亡者는 蒼龜與龍하며 或世見거나 或不見者면 螭與慶忌라. 故로 人皆服之나 而管子則之하고 人皆有之나 而管子以⁵⁸⁾之니라.

<譯>

그러므로 水의 精氣 중에 거칠고 탁한 것이 엉기고 머물러 능히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과 옥을 생기게 하고, 水氣가 보이지 않게 흘러 능히 있다가도 없는 것은 거북이나 용 같은 동물을 생기게 하며, 삼십년에 한번 水氣를 보거나 혹 그나마도 보지 못 할 정도의 매마른 경우에는 螭나 慶忌같은 동물을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단지 물

58) 以: 用也 쓸용. '用'과 같은 의미로 쓰임.

을 복용할 뿐이지만 관자는 이것을 법칙으로 삼았으며, 사람들이 몸안에 水氣를 두고 있을 뿐이지만 관자는 이것의 이치를 쓰이도록 한 것이다.

是故로 具者는 何也오? 水是也라. 萬物莫不以生하니 唯知其託者면 能爲之正⁵⁹⁾이리. 具者 水是也. 故로 曰 水者는 何也오? 萬物之本原也요 諸生之宗室也며 美惡 賢不肖 愚俊之所産也라.

<譯>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具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 바로 그것이다. 만물은 水氣를 얻지 못하면 생겨나지 못하니 오직 水氣에 의탁해 살아가는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알면 능히 정치를 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구비하게 하는 것은 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은 만물의 本原이며 모든 생명의 宗室이요 세상의 모든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 현명함과 미련함, 어리석음과 빼어남을 낳는 것이다.

何以知其然也오?

夫齊之水는 道⁶⁰⁾躁⁶¹⁾而復 故로 其民 貪鬪而好勇⁶²⁾하고

楚之水는 淖弱⁶³⁾而清 故로 其民 輕果而賊

59) 正: 여기에서는 '政'의 의미로 쓰임.

60) 道: 《讀書雜誌》중에 王念孫은 '適'字로 고침. 여기에서는 '適'의 뜻으로 쓰임. 適: 닥칠주, 다할주, 굳을주, 모일주, 끝날주, 셀주. 動의 의미.

61) 躁: 떠들조, 시끄러울조, 성급할조.

62) 貪鬪而好勇: 물이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백성이 탐욕스럽고 물소리가 시끄러우기 때문에 백성이 거칠며 물의 성질이 굳세기 때문에 용맹을 좋아한다.

63) 淖弱(작약): 貞淑함, 혹은 柔弱함. 여기에서는 淖約의 뜻으로 쓰임. 淖: 진흙노, 압전할작.

하며

越之水는 濁重而泊⁶⁴) 故로 其民 愚疾⁶⁵)而 垢⁶⁶)하고

秦之水는 泔⁶⁷)窳⁶⁸)而穢⁶⁹)하야 어⁷⁰) (土변에 於)滯⁷¹)而雜 故로 其民 貪戾罔⁷²)而 好事齊⁷³)하며

晉之水는 枯旱而運⁷⁴)하야 어⁷⁵) (土변에 於)滯而雜 故로 其民 諂諛⁷⁶) 葆⁷⁷)詐 巧 佞⁷⁸)而好利⁷⁹)하고

燕之水는 萃⁸⁰)下而弱하야 沈滯而雜 故로 其民 愚戇⁸¹)而好貞하고 輕疾而易死하며

宋之水는 輕勁而清 故로 其民 閒易而好正 이라.

<譯>

어찌하여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대저 齊나라의 물은 굳세고 시끄러우며 돌아서 제 자리에 음으로 그 백성이 탐욕스럽고 거칠며 용맹을 좋아한다. 楚나라의 물은 정숙하고 유약하여 맑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날래고 몸이 가벼우며 과감하나 선하지 못한 자는 도적이 된다. 越나라의 물은 성질이 탁하고 무거워 肉汁과 같아 그 백성이 어리석고 질투가 많으며 더럽다. 秦나라의 물은 쌀 뜨물같은 탁한 물이 모여 머물러 있고 진흙이 엉겨 물과 흙이 반반이 되어 섞여 있으니 그 백성이 욕심스럽고 사나우며 속이기를 잘하고 제나라를 섬기기를 좋아한다. 晉나라의 물은 선게 마르고 굵이쳐 흐르며 물과 흙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백성이 아침을 잘 하고 감추고 속이며 교묘히 아침하며 이익됨을 좋아한다. 燕나라의 물은 아래에 모여 들어 물길이 깊고 성질이 약하며 흙이 섞여 더러우니 그 백성이 어리석

64) 泊: 문택할계, 부을계, 국물계, 미칠기. 여기에서는 '肉汁'의 뜻.

고 정숙함을 좋아하고 쉽게 병이 걸려 쉽게 죽는다. 宋나라의 물은 가볍고 굳세며 맑기 때문에 그 백성이 소박한 품성을 지니고 있고 바른 것을 좋아한다.

是以로 聖人之化世也에 其解⁸²)在水하니 라. 故로 水一則人心正하고 水清則民心易하니 一⁸³)則欲不汚하며 民心易則行無邪라. 是以로 聖人之治於世也에 不人告也며 不戶說也 하니 其樞在水하니라.

<譯>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을 교화함에 그 말씀을 물에 두었다. 그러므로 물이 하나로 잡된 것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물이

65) 疾: 여기에서는 '戇'의 뜻으로 쓰임. 戇: 시새움 할질.

66) 垢: 註釋家에 따라 '垢'로 고친 경우도 있고 厚의 古字인 '宍'로 본 경우도 있다. '宍'로 볼 경우 '착한 사람이 물의 重厚한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 수 있음.

67) 泔: 뜨물감, 삼을감, 찰감.

68) 窳: 쌀을추, 모을추. 窳: 最의 俗字.

69) 穢: 穢와 같이 쓰임.

70) 어(土변에 於): 찌꺼기, 앙금어. 여기에서는 '탁한 진흙'을 말함.

71) 滯: 여기에서는 '凝'의 의미로 엉겨있음을 말함.

72) 罔: 속일망. 기만함.

73) 齊: 주석기에 따라 빼기도 함. 혹은 착한 사람은 제나라를 섬기기를 좋아한다고 풀기도 함.

74) 運: 運의 뜻으로 쓰임.

75) 어(土변에 於): 찌꺼기, 앙금어.

76) 諂諛: 阿諛함. 諛: 아침할침. 諛: 아침할유.

77) 葆: 더부룩히날보, 깃장식보, 음보(초목의 음), 平성귀보, 감출보.

78) 巧佞: 교묘하게 아침함.

79) 諂諛 葆詐 巧佞而好利: 물이 쉽게 마르므로 아침을 좋아하고 감추고 속이며, 물이 굵이쳐 돌아 감으로 교묘히 아침하며, 물이 더러우니 이익을 좋아함.

80) 萃: 모을체. 모일체. 아월체.

81) 戇: 어리석음당. 愚戇: 어리석음.

82) 解: 풀. 알계함. 설명함.

83) 一: '人心正'이 省略됨.

맑으면 백성의 마음이 소박하게 된다. 하나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嗜欲이 그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며 백성의 마음이 소박해지면 행함에 사됨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을 다스림에 사람마다 그 법을 말하지 않고 집집마다 그 이치를 이야기 하지 않으니 그 가장 중요한 이치가 물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管子·水地》에 나타난 '水'의 意味를 살펴보면 땅(地)이란 모든 생명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며 그 땅위에 흐르고 있는 물(水)이란 마치 인체의 혈관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물이 갖추고 있는 8가지 덕목(仁, 精, 正, 義, 卑, 準, 素, 淡)을 이야기하여 만물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물의 妙用을 이야기하여 사람이나 옥 같은 존재는 水의 精氣 중에 거칠고 탁한 것이 엉기고 머물러 생긴 것이고, 거북이나 용 같은 신령스런 것은 水氣가 보이지 않게 작용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생גיע 하며, 蟪나 慶忌같은 상상속의 동물은 삼십년에 한 번 水氣를 보거나 혹 그나마도 보지 못할 정도의 매마른 경우에만 생גיע 된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齊나라를 비롯한 일곱나라에 대한 물의 특성을 열거하여 그 특성에 따른 사람들의 성질을 나열하였고, 지역에 따른 물의 성질이 곧 사람의 人性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따라 교화와 올바른 정치도 이 물의 이치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인식하였다.

84) 李暉光著; 芝峰類說, 서울, 乙酉文化社, 1994, P 63-65.

2. 芝峰類說의 '水'⁸⁴⁾

河源志에 曰河源在吐蕃⁸⁵⁾西鄙⁸⁶⁾하야 有泉百餘泓하고 方可七八十里 하며 沮洳泥濘하야 弱不勝人跡望之燦若列星 故로 名星宿海也 라하니라. 按河源自星宿海하야 行半月에 至崑崙則古稱河出崑崙者라하니 矣也라. 在胡元時에 西域諸國이 無遠不通 故로 遣使窮河源 所出而爲此志則其言宜可信也라.

<譯>

《河源志》에 말하기를 “河水의 근원은 吐蕃과 西鄙에 있다. 깊은 못을 이루고 있는 백여개의 샘이 있어서 바야흐로 七, 八十리는 될 것이다. 低濕한 진흙 수렁이 무르고 약하여서 사람의 발자취를 이기지 못한다. 바라보면 번쩍거리는 것이 마치 별들이 널려 있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이름을 星宿海라고 한다”고 하였다. 상고해보니 河水의 원류가 星宿海에서부터 一五日쯤 흘러가서 崑崙山에 이른다. 그러니 옛날에 河水의 근원이 崑崙山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元나라 때에는 西方의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서로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使者를 파견하여 하수의 근원이 나오는 것을 끝까지 조사하여 이 《河源志》를 만든 것이니, 그 말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이다.

朱子以黃河及長江鴨綠江을 謂天下三大水云하니 蓋鴨綠江은 自白頭山走數千里하야 分

85) 吐蕃: 지금의 西藏. 國王 棄宗弄贊이 印度와 통하고 또 唐의 太宗과 友好 관계를 맺어 兩國의 文物을 採用하였으며 勢力이 날로 성하였으나 唐나라 이후 점차 衰하여져 淸나라 世宗 以來 蕃屬國이 되었음.

86) 西鄙: 《中文大辭典》에서는 단순히 서쪽변방의 마을이라고만 나와 있음.

派爲三江하야 西南入于海하니 其發源甚遠故
로 謂之大水라.

<譯>

朱子가 黃河와 長江과 압록강을 천하의 三
大水라고 하였다. 대체로 압록강은 백두산에
서부터 수천 리를 달리다가 세 강으로 나뉘어
서 서쪽과 남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 원
류가 매우 멀기 때문에 大水(큰물)라고 한 것
이다.

我國所謂涓水有三하니 其一은 漢書謂漢興
하야 修遼東古塞하고 至涓水爲界라하며 又衛
滿亡命渡涓水라하니 卽今之鴨綠江也라. 其一
은 唐史謂平壤城南涓水라하니 卽今之大洞江
也라. 其一은 東國史謂百濟疆城이 北至涓河
라하니 卽今猪灘⁸⁷⁾也라. 按戰國策에 云朝射
東莒하고 夕發涓丘라하니 蓋指我國涓水而言
이라.

<譯>

우리나라에 涓水(폐수)라고 말하는 것이
셋 있다. 그 하나는 《漢書》에 “漢나라가 일
어나서 遼東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
르러 국경을 정하였다”고 한 것과 또 “衛滿이
망명하여 폐수를 건넜다”고 한 것이니, 바로
지금의 鴨綠江이다. 또 하나는 《唐史》에 “平
壤城 남쪽의 涓水”라고 한 것이니 바로 지금의
大洞江이다. 또 하나는 《東國史》에 “百濟의
영토는 북으로 涓河에 이른다”고 한 것이니 바
로 지금의 猪灘이다. 《戰國策》을 고찰하여
보니, “아침에 東莒(동거)에서 활을 쏘고, 저
녁에 涓江을 출발하였다”고 하였다. 아마 우리
나라의 폐수를 가리켜서 한 말일 것이다.

87) 猪灘(지탄): 지금의 예성강을 말하는 듯함.

千字文에 金生麗水라하니 或者言麗水之麗
字는 卽高麗也라하니라. 蓋以三叉河는 一名
遼水로 舊屬高麗故云하니라. 今按韓子曰 荆
南麗水生金이라하고 又考杜氏通典에 南方有
麗水縣이라하니 乃知其文이 本出於此라.

<譯>

《千字文》에 “금이 麗水에서 나온다”라고
한 것을 어떤 이는 麗水의 麗字는 곧 高麗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한다. 대체로 三叉河의 다
른 이름은 遼水로서 옛날에는 고려에 속하였
다고 한다. 지금 《韓非子》를 참고하여 보니
“荆南麗水에서 금이 산출된다”하였고, 또 《杜
氏通典》을 살펴보니 “남쪽 지방에 麗水縣이
있다”고 하였으니 비로소 그 글들이 본래 여기
에서 나온 것을 알겠다.

河者는 北方流水之通名이라 故로 自遼抵
燕都一路에 有八渡河하니 甕北河 三叉河 大
小陵河 沙河 深河 灤河 潞河 玉河로 皆以河稱
焉이라. 我國之猪灘을 舊稱涓河라하니 蓋亦
以此라.

<譯>

河라고 하는 말은 北方에서 흐르는 물을 통
칭하는 이름이다. 그런 까닭에 遼에서부터 燕
都(北京)에 이르기까지는 여덟 개의 河를 건
너야 한다. 즉 甕北河(옹북하), 三叉河, 大小
陵河, 沙河, 深河, 灤河(난하), 潞河(노하),
玉河가 그것으로, 모두 河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猪灘을 舊涓河라고 일컫는 것도 아마
또한 이 때문일 것이다.

我國溫泉은 京畿全羅道外에 無處無之하나
平山 延安 溫陽 伊川 高城 東萊가 最著名하니
라. 俗傳에 世宗大王有眼疾하야 命中使로 汲

取諸道溫水하야 稱量하니 則唯伊川葛山溫水
가 最重하니 乃親幸沐浴良驗하니라. 故로 以
葛山溫泉을 爲第一云하니라.

<譯>

우리나라의 溫泉은 경기와 전라도를 제외
하고는 없는곳이 없고, 平山 延安 溫陽 伊川
高城 東萊의 온천들이 가장 著名하다. 세상에
서 전하는 말에, 세종대왕이 眼疾이 있어서
中使에게 명령하여 여러 道의 온천물을 길어
오게 하여 저울에 달아보니, 伊川의 葛山 온
천물이 가장 무거웠으므로, 드디어 친히 거기
에 행차하여 목욕하였다니 좋은 효험이 있었
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갈산 온천의 水質이
제일 좋다고 한다.

椒井多有之하니 廣州清安等處가 最有名하
고 每七八월에 有椒氣甚烈이라. 病人沐浴하
면 頗有奇效라. 按本草컨대 溫泉下有硫黃 故
로 水熱이라하며 醫鑑曰 冷泉下有白礬 故로
水味酸澁冷冽이라하니 所謂冷泉卽 今椒水也
라.

<譯>

椒井이란 것도 많이 있으니 그 중에도 廣
州, 清安 등처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 매년
七, 八月이 되면 물에 후추 기운이 있어서 몹
시 맵다. 병든 사람이 목욕하면 자못 신기한
효험이 있다고 한다. 《本草》를 조사하여 보
니 “온천 밑에는 硫黃이 있기 때문에 물이 뜨
겁다”고 하였고, 《醫鑑》에는 “冷泉 밑에는
白礬이 있기 때문에 물맛이 시고 떼고 차고
맵다”고 하였다. 이른바 冷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椒水인 것이다.

海州有鳴川하니 以錢別之地로 故名이라.

昔有人於此別妓하되 妓不泣하니 乃作詩曰 水
有鳴川水하되 人無泣別人이라 那⁸⁸⁾將橋下水
하야 沾却美人巾이라하니라.

<譯>

海州에 우는 냇물이 있다. 사람을 錢別하는
곳이므로 그렇게 이름지은 것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기생과 이별을
하는데 기생이 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시
를 지어 말하기를, “물은 우는 내의 물이 있건
만 사람은 이별을 우는 사람이 없구나. 어떻
게 다리 아래의 물을 가져다가 美人의 손수건
을 젖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한다.

大津在京畿忠清之間으로 水路三千里中에
有大石하야 舟觸則碎하니 俗號⁸⁹⁾神令公이
라하며 行人必以香火로 祈祝하야 賽神之稱하
니 盖以此而謂之라. 令公則未知其義하니 或
疑令公은 卽靈君云이라하니라.

<譯>

大津은 경기도와 충청도 사이에 있다. 水路
의 三十里 가운데에 큰 돌이 있어서 배가 부
딛치면 부서지므로, 세상에서 賽神令公(새신
영공)이라고 일컫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香火를 갖추어 기원하고 빈다. 賽神(신에
게 제사 드리는 것)이라는 칭호는 아마 이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令公이라는 말은 그 뜻
을 알지 못하겠다. 혹 令公이란 즉 靈君이라
는 말이 아닌가 의심된다.

半山⁹⁰⁾詩에 云 十月寒江正復鱸⁹¹⁾라하니

88) 那: 어찌나.

89) 賽: 굿새, 굿할새.

90) 半山: 宋나라 王安石의 號.

91) 復鱸: 물놀이할때 띄우는 거룻배를 먼저 있던 곳
에 매어두는 것을 말함. 鱸: 거룻배조, 작은배.

按正月水曰解凍水요 二月曰白蘚水요 三月曰桃花水요 四月曰瓜蔓水요 五月曰麥黃水요 六月曰山樊水요 七月曰豆花水요 八月曰荻苗水요 九月曰霜降水요 十月曰復槽水요 十一月曰走凌水요 十二月曰蹙凌水라하니라. 庾信詩에 春水望桃花라하고 張志和詩에 桃花流水鱖魚肥라하니 亦此也라.

<譯>

半山의 시에 “十月의 차가운 강물이 바로 復槽(부조)의 계절이로구나”라고 하였다. 고증하여 보니 正月의 물을 解凍水, 二月물을 白蘚水(백빈수), 三月물을 桃花水, 四月물을 瓜蔓水(과만수), 五月물을 麥黃水, 六月물을 山樊水(산번수), 七月물을 豆花水, 八月물을 荻苗水, 九月물을 霜降水, 十月물을 復槽水, 十一月 물을 走凌水, 十二月물을 蹙凌水(축릉수)라고 한다. 金庾信의 시에 “봄물에 桃花를 바라본다”라고 한 것이나, 張志和의 시에 “도화 흐르는 물에 쓰가리가 살찌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 三月의 도화수를 말한 것이다.

李睟光이 지은 《芝峰類說》에는 中國 河水의 근원지가 崑崙山보다 더 서쪽인 吐蕃과 西鄙에 있다고 하였다. 鴨綠江이 黃河와 長江과 더불어 三大水의 하나라고 이야기한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大水’라 칭하였고, 우리나라의 溟水라고 하는 것이 셋이 있음을 말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온천을 열거하고 평을 하였으며, 椒井에 관한 것, 海州의 우는 냇물에 대한 것, 賽神畝公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년 12월에 따른 물의 다른 名稱을 열거 하였다.

92) 鱖: 쓰가리굴.

3. 老子에 나타난 ‘水’⁹³⁾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于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政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唯不爭 故無尤

<譯>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못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도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道에 가깝다. 살때는 물처럼 땅을 좋게 하고, 마음을 쓸 때는 물처럼 그욕함을 좋게 하고, 사람을 사귄때는 물처럼 어짐을 좋게 하고, 말할 때는 물처럼 민음을 좋게하고, 다스릴 때는 물처럼 다스림을 좋게하고, 일할 때는 물처럼 능함을 좋게하고, 움직일 때는 물처럼 때를 좋게 하라.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도다.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弱之勝強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是以聖人云 受國之垢 是謂社稷主 受國不祥 是爲天下王 正言若反

<譯>

하늘 아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데는 물을 이길 것이 없다. 물의 쓰임을 대신할 게 없는 것이다. 약함은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은 딱딱한 것을 이기니 天下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지만은 능히 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온갖 더러움을 한 몸에 지녀야 그 社稷의 주인이라

93) 漢文大系 卷9 老子翼,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P 13.

漢文大系 卷9 老子翼,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P 37.

할 것이요, 나라의 온갖 상서롭지 못함을 한 몸에 지녀야 天下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바른 말은 반대로 들린다.

《老子》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上善若水'라는 名句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내세우지 않고 道의 본질과 가까운 '水'의 德目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부드럽고 약해보이는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老子思想을 克明하게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說文解字에 나타난 '水'94)

水 準也 北方之行 象衆水竝流 中有微陽之氣也

後漢 許慎의 《說文解字》에는 '水'란 萬物을 고르게 해주는 規準이 되는 것이며, 모든 물이 합쳐서 흐르고 있는 모양을 본 뜬 글자 형태로 周易 坎卦(☵)에 비추어 내부에 微陽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5. 釋名·釋天에 나타난 '水'95)

水 準也 準平物也

後漢代 劉熙가 撰한 《釋名》에는 《說文解字》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水'란 모든 사물을 고르고 평평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94) 許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 72, P 516.

6. 周易 乾卦에 나타난 '水'96)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易·乾卦·文言》

《易·乾卦·文言》에는 같은 기운을 가진 것은 서로 응하게 마련이어서 물은 濕한 곳으로 흐르게 되고 불은 마른 곳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7. 錦囊經에 나타난 '水'97)

經曰 氣乘風則散하고 界水則止하니 古人은 聚之使不散하고 行之使有止하나니 故로 謂之風水라. 風水之法은 得水爲上이요 藏風次之니라.

<譯>

經에 이르기를 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고 하였다. 古人은 氣를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하고, 氣를 行하게 하다가 멈추게 하고자 하니 따라서 風水라 하는 것이다. 風水의 法術은 得水가 으뜸이요 藏風이 그 다음이다.

夫土者氣之體요 有土斯有氣라. 氣者水之母니 有氣斯有水라.

<譯>

무릇 흙이란 氣의 몸으로서 흙이 있는 곳에 氣가 있다. 氣는 水의 근본이다. 氣가 있다는

95) 劉熙撰 王先謙撰集; 釋名疏證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民國 64.

96) 漢文大系 卷16 周易,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P 11.

97) 郭璞著 崔昌祚譯註; 青烏經 錦囊經, 서울, 민음사, 1993, P 72~76, P 82~83.

것은 水가 있다는 것이다.

郭璞이 지었다고 하는 《錦囊經》은 '葬書'라고도 불리우며 風水學의 중요한 문헌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天氣의 가장 역동적 기운의 표현으로 '風'을 들고 있고 地氣에는 '水'를 들고 있다. '風水'란 이 두가지 생동하는 기운을 갈무리하는 것으로 '藏風' 이전에 '得水'가 먼저임을 말하고 있다.

8. 內經에 나타난 '水'의 意味.

《黃帝內經》에 나타난 '水'의 意味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아홉가지의 경우로 大別해보았다.

- ① 강, 호수, 바다를 범칭함⁹⁸⁾.
- ② 河流를 의미하여 經絡을 설명함⁹⁹⁾.
- ③ 五行 중의 하나를 가르킴¹⁰⁰⁾.
- ④ 腎藏을 의미함¹⁰¹⁾.
- ⑤ 精氣를 의미하는 것¹⁰²⁾.
- ⑥ 특별히 눈에 한정된 精氣를 의미함¹⁰³⁾.
- ⑦ 눈물을 가르킴¹⁰⁴⁾.
- ⑧ 水腫病을 가르킴¹⁰⁵⁾.
- ⑨ 오줌을 가르킴¹⁰⁶⁾.

9. 本草綱目的 '水'¹⁰⁷⁾

李時珍曰 水者 坎之象也. 其文橫則爲≡ 縱則爲☵¹⁰⁸⁾. 其體純陰 其用純陽. 上則爲雨露

98) "火燔燔 水泉涸 物焦槩" 《素問·氣交變大論》-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97.

霜雪 下則爲海河泉井. 流止寒溫 其之所鍾旣已 甘淡咸苦 味之所入不同. 是以昔人分別九州水土 以辨人之美惡壽夭. 蓋水爲萬化之源 土爲萬物之母. 飲資于水 食資于土. 飲食者人之命脈也 而營衛賴之. 故曰 水去則營竭 谷去則營亡. 然則水之性味 尤慎疾營生者之所當潛心也. 今集水之關於藥食者 凡四十三種 分爲二類 曰天 曰地.

名醫別錄二種 本草拾遺二十六種 嘉祐本草四種 本草綱目一十一種

〈附注〉

水之一 天水類一十三種

雨水 潦水 露水 甘露 甘露蜜 明水 冬霜 腊雪 雹 夏水 神水 半天河 屋漏水

水之二 地水類三十種

流水 井泉水 節氣水 醴泉 玉井水 乳穴水 溫湯 碧海 鹽膽水 阿井水 山岩泉水 古塚中水 糧罌中水 赤龍浴水 車轍中水 地漿 熱湯 生熱湯 齋水 漿水 甑氣水 銅壺滴漏水 三家洗碗水 磨刀水 浸藍水 猪槽中水 市間瀾坑水 洗手

99) "足太陽外合溝水 內屬膀胱 而通水道焉 足少陽外合渭水 內屬於膽" 《靈樞·經水》- 上揭書 P 312.

100) "木得金而伐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 金得火而缺 水得土而納" 《素問·寶命全形論》- 上揭書 P 80.

101) "水者 腎也" 《靈樞·熱病》- 上揭書 P 339.

102) "八八則齒髮去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寫" 《素問·上古天真論》- 上揭書 P 9.

103) "夫一水不勝五火 故目眦盲" 《素問·解精微論》王冰의 注에는 "一水 目也"라 함. - 上揭書 P 255.

104) "不知水所從生 涕所從出也" 《素問·解精微論》- 上揭書 P 254.

105) "諸水皆生於腎乎" 《素問·水熱穴論》- 上揭書 P 164.

106) "水泉不止者 是膀胱不藏也" 《素問·脈要精微論》- 上揭書 P 51.

10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87~412.

108) 坎卦를 縱으로 그림 그린 것.

足水 洗兒湯 諸水有毒

本草綱目水部第五卷
水之一

1. 雨水- 빗물

〈釋名〉時珍曰 地氣升爲雲 天氣降爲雨 故人之汗 以天地之雨名之.

〈氣味〉咸 平 無毒.

立春雨水

〈主治〉夫婦各飲一杯 還房 當獲時有子 神效. 宜煎發散急補中益氣湯.

梅雨水

〈主治〉洗瘡疥 滅癩痕 入醬易熱.

液雨水

〈主治〉殺百蟲 宜煎殺蟲消積之藥.

2. 潦水- 길위에 고인 물

〈氣味〉甘 平 無毒

3. 露水- 이슬

〈氣味〉甘 平 無毒.

〈主治〉秋露繁時 以盤收取 煎如飴 今人延年不饑. 稟肅殺之氣 宜煎潤肺殺祟之藥. 及調疥癬蟲癩諸散.

百草頭上秋露 未晞時收取 愈百疾 止消渴 今人身輕不饑 肌肉悅澤. 別有化云母作粉服法. 八月朔日收取 摩墨点太陽穴 止頭痛 点膏肓穴 治勞瘵 謂之天灸.

百花上露 令人好顏色.

柏叶上露 菖蒲上露 并能明目 旦旦洗之.

韭叶上露 去白癩風 旦旦涂之.

凌霄花上露 入目損目.

4. 甘露- 천하가 태평할 때 내리는 상서로운 이슬

〈釋名〉膏露 瑞露 天酒 神漿

〈氣味〉甘 大寒 無毒.

〈主治〉食之潤五臟 長年 不饑 神仙.

5. 甘露蜜- 巴西地域에서 나오는 옛같이 끈끈한 물

〈氣味〉甘 平 無毒

〈主治〉胸膈諸熱 明目止渴.

6. 明水- 조개를 밝은 달빛에 비춰 받은 물

〈釋名〉方諸水

〈氣味〉甘 寒 無毒.

〈主治〉明目定心 去小兒煩熱 止渴.

7. 冬霜- 겨울에 온 서리

〈氣味〉甘 寒 無毒.

〈主治〉食之解酒熱 傷寒鼻塞 酒後諸熱面赤者. 和蚌粉 傅暑月癩瘡 及腋下赤腫 立瘥.

〈附方〉寒熱瘧疾

8. 臘雪- 동지뒤 세계 戌日에 내린 눈 녹은 물

〈氣味〉甘 冷 無毒.

〈主治〉解一切毒 治天行時氣溫疫 小兒熱痢 狂啼 大人丹石發動 酒後暴熱 黃疸 仍小溫服之. 洗目 退赤. 煎茶煮粥 解熱止渴. 宜煎傷寒火喝之藥 抹癩亦良.

9. 霜¹⁰⁹⁾- 우박

〈氣味〉咸 冷 有毒.

109) 霜: 누리박, 우박박.

10. 夏水- 여름철의 얼음

〈釋名〉凌

〈氣味〉甘 冷 無毒.

〈主治〉去熱煩 熨人乳石發熱腫. 解煩渴 消暑毒. 傷寒陽毒 熱盛昏迷者 以冰一塊置臍中良亦解燒酒毒.

〈附方〉滅癰痕

11. 神水- 5월 5일 비가 올 때 대를 잘라 나온 물

〈氣味〉甘 寒 無毒.

〈主治〉心腹積聚及蟲病 和獺肝爲丸服. 又飲之 清熱化痰 定驚安神.

12. 半天河- 나무구멍과 참대위끝에 고인 빗물

〈釋名〉上池水

〈氣味〉甘 微寒 無毒.

〈主治〉鬼疰 狂 邪氣 惡毒. 洗諸瘡. 主蠱毒. 殺鬼精 恍惚妄語 與飲之 勿令知之. 槐樹間者 主諸風及惡瘡風癢疥痒.

〈附方〉辟穢時疫 身體白駁

13. 屋漏水- 빗집지붕에서 흘러 내린 물

〈氣味〉辛 苦 有毒.

〈主治〉洗犬咬瘡 更以水澆屋檐 取滴下土傳之 效. 塗疣目 傳丹毒.

水之二

1. 流水- 강물

千里水 東流水 甘欄水

〈氣味〉甘 平 無毒.

〈主治〉病後虛弱 揚之萬遍 煮藥禁神最驗

主五勞七傷 腎虛脾弱 陽盛陰虛 目不能瞑 及霍亂吐利 傷寒後欲作奔豚.

逆流水

〈主治〉中風 卒厥 頭風 瘧疾 咽喉諸病 宣吐痰飲.

〈附方〉目不得瞑 汗後奔豚 服藥過劑

2. 井泉水- 우물물

井華水

〈氣味〉甘 平 無毒.

〈主治〉酒後熱痢 洗目中膚翳 治人大驚九竅 四肢指肢皆出血 以水噴面. 和朱砂服. 令人好顏色 鎮心安神. 治口臭 堪煉諸藥石. 投酒醋 令不腐. 宜煎補陰之藥. 宜煎一切痰火氣血藥.

新汲水

〈主治〉消渴反胃 熱痢熱淋 小便赤澁 却邪調中 下熱氣 并宜飲之. 射癰腫令散. 洗漆瘡. 治墜損腸出 冷噴其身面 則腸自入也. 又解閉口椒毒 下魚骨哽. 解馬刀毒. 解砒石 烏喙 燒酒 煤炭毒 治熱悶昏昏煩渴.

〈附方〉九竅出血 衄血不止 金瘡血出 犬咬血出 蝮螫傷 馬汗入瘡 魚骨哽咽 中砒石毒 中馬喙毒 中蒙汗毒 中煤炭毒 服藥過劑 燒酒醉死 飲酒齒痛 破傷風病 墜損腸出 眼睛突出 時行火眼 心悶汗出 嘔吐陽厥 霍亂吐瀉 厭穢瘧疫 口氣臭惡 心腹冷痛 寒熱注病 火病惡寒 丁毒疽瘡 婦人將產 初生不啼

3. 節氣水

立春, 清明二節貯水, 謂之神水.

〈主治〉宜浸造諸風脾胃虛損諸丹丸散及藥酒 久留不坏.

寒露, 冬至, 小寒, 大寒四節, 及腊日水

〈主治〉宜浸造滋補五臟及痰火積聚蟲毒諸

丹丸 并煮醱藥酒 與雪水同功.

立秋日五更井華水

〈主治〉長幼各飲一杯 能却虐疾百病.

重午日午時水

〈主治〉宜造虐疾瘡瘍金瘡百蟲蠱毒諸丹丸.

小滿, 亡種, 白露三節內水

〈主治〉并有毒. 造藥 醱酒醋一應食物 皆易敗坏. 人飲之 亦生脾胃疾.

4. 醱泉- 샘에서 나오는 엷은 단술맛이 나는 물

〈釋名〉甘泉

〈氣味〉甘 平 無毒.

〈主治〉心腹痛 疰忤鬼氣邪穢之屬 并就泉空腹飲之. 又止熱消渴及反胃霍亂爲上 亦以新汲者爲佳.

5. 玉井水- 옥 나는 곳에서 솟는 물

〈氣味〉甘 平 無毒.

〈主治〉久服神仙 令人體潤 毛髮不白.

6. 乳穴水- 종유석 동굴에서 나온 물

〈氣味〉甘 溫 無毒.

〈主治〉久服肥健人 能食 體潤不老 與鍾乳同功.

7. 溫湯- 더운 샘물

〈釋名〉溫泉 沸泉

〈氣味〉辛 熱 微毒.

〈主治〉諸風筋骨攣縮 及肌皮頑痺 手足不遂 無眉發 疥癬諸疾 在皮膚骨節者 入浴. 浴訖 當大虛憊 可隨病與藥 及飲食補養. 非有病人 不宜輕入.

8. 碧海水- 바다 편물

〈氣味〉咸 小溫 有小毒.

〈主治〉煮浴 去風癢疥癬. 飲一合 吐下宿食 臚瘡.

9. 鹽膽水- 소금을 처음 절때 나오는 검은 물

〈釋名〉鹵水

〈氣味〉咸 苦 有大毒.

〈主治〉蠹蝕疥癬 瘰疾蟲咬 及馬牛爲蟲蝕 毒蟲入肉生子. 六畜飲一合 當時死 人亦然. 凡瘡有血者 不可涂之. 痰厥不省 灌之取吐 良.

10. 阿井水- 袁州 陽谷縣에서 나오는 샘물

〈氣味〉甘 咸 平 無毒

〈主治〉下膈 疏痰 止吐.

11. 山岩泉水- 산중의 바위 중에 나오는 물

〈氣味〉甘 平 無毒.

〈主治〉霍亂煩悶 嘔吐腹空 轉筋恐入腹 宜多服之 名曰洗腸 勿令腹空 空則更服. 人皆懼此 然嘗試有效. 但身冷力弱者 防致臟寒 當以意消息之.

12. 古塚中水- 무덤 속에 권 물

〈主治〉有毒 殺人.

13. 穰器中水- 무덤속 식량을 넣어 두었던 항아리에 권 물

〈氣味〉辛 平 有小毒.

〈主治〉鬼氣中惡疰忤 心腹痛 惡夢鬼神 殺蛔蟲. 進一合 不可多飲 令人心悶. 又云, 洗眼

見鬼 未試.

14. 赤龍浴水- 붉은 뱀이 살고 있는 샘에서 나온 물

〈氣味〉有小毒.

〈主治〉瘰結氣 諸瘰 惡蟲入腹 及咬人生瘡者.

15. 車轍中水- 수레바퀴 자욱에 권 물

〈主治〉癰瘍風 五月五日取洗之 甚良. 牛啼中水亦可.

16. 地漿- 누런 흙물

〈釋名〉土漿

〈氣味〉甘 寒 無毒.

〈主治〉解中毒煩悶. 解一切魚肉果菜藥物諸菌毒 療霍亂及中喝卒死者 飲一升妙.

〈附方〉熱渴煩悶 干霍亂病 服藥過劑 閉口椒毒 中野芋毒 黃鱈魚毒 中砒霜毒

17. 熱湯- 덥게 끓인 물

〈釋名〉百沸湯 麻沸湯 太和湯

〈氣味〉甘 平 無毒.

〈主治〉助陽氣 行經絡. 熨霍亂轉筋入腹及客忤死.

〈附方〉傷寒初期 初感風寒 忤惡卒死 霍亂轉筋 火眼赤爛 金瘡血出 代指腫痛 癰腫初期 凍瘡不瘡 馬汗入瘡 蝎螫傷 蛇繞不解

18. 生熟湯- 끓인 물과 찬물이 반반 섞인 물

〈釋名〉陰陽水

〈氣味〉甘 咸 無毒.

〈主治〉調中消食. 凡痰瘧 及宿食毒惡之物

臃脹欲作霍亂者 卽以鹽投中 進一二升, 令吐盡痰食 便愈. 凡霍亂及嘔吐 不能納食及藥 危甚者 先飲數口卽定.

19. 齏¹¹⁰⁾水- 누린 나물로 만든 물

〈氣味〉酸 咸 無毒.

〈主治〉吐諸痰飲宿食, 酸苦涌泄爲陰也.

20. 漿水- 좁쌀죽 옷물

〈釋名〉酸漿

〈氣味〉甘 酸 微溫 無毒.

〈主治〉調中引氣 宣和強力 通關開胃止渴 霍亂泄利 消宿食. 宜作粥薄暮啜之 解煩去睡 調理腑臟. 煎令酸 止嘔噦 白皮膚 體如縑帛. 利小便.

〈附方〉霍亂吐下 過食脯腊 滑胎易產 手指腫痛 面上黑子 骨哽在咽

21. 飯氣水- 밥 짓는 시루 뚜껑에 맺힌 물

〈主治〉以器承取 沐頭 長毛發 令黑潤 朝朝用梳摩小兒頭 久覺有益也.

〈附方〉小兒諸瘡

22. 銅壺滴漏水- 동그릇에서 떨어지는 물

〈主治〉性滑 上可至顛 下可至泉 宜煎四末之藥.

23. 三家洗碗水- 오래 묵은 주발에 담아 놓은 물

〈主治〉惡瘡久不瘡 煎沸入鹽洗之 不過三五度 立效.

110) 齏: 회제, 나물제, 부술제.

24. 磨刀水- 칼을 갈고 난 물

〈氣味〉咸 寒 無毒.

〈主治〉利小便 消熱腫.

〈附方〉小便不通 肛門腫痛 盤腸生產 蛇咬毒攻 耳中卒痛

25. 浸藍水- 쪽과 석회가 섞인 물

〈氣味〉辛 苦 寒 無毒.

〈主治〉除熱 解毒 殺蟲. 治誤吞水蛭成積 脹痛黃瘦 飲之取下則愈. 染布水 療咽喉病及噎疾 溫服一腫良.

26. 猪槽中水- 돼지 구유에 생긴 물

〈氣味〉無毒.

〈主治〉蠱毒 服一盞. 又療蛇咬瘡 浸之效.

27. 市門瀾坑水- 공중변소 근처에 낀 물

〈氣味〉無毒.

〈主治〉止消渴 重者服一小盞 勿令知之 三度瘥.

28. 洗手足水- 손 발을 씻은 물

〈主治〉病後勞復 或因梳頭 或食物復發 取一合飲之 效.

29. 洗兒湯- 어린 아이를 씻은 물

〈主治〉胎衣不下 服一盞 勿令知之.

30. 諸水有毒

水府龍宮 不可觸犯. 水中有赤脈 不可斷之. 井水沸溢 不可飲. 古井留井不可入 有毒殺人. 古井不可塞 令人盲聾. 陰地流泉有毒 二八月行人飲之 成瘡瘻 損脚力. 澤中停水 五六月有魚鱉精 人飲之 成瘦病. 沙河中水 飲之令人暗.

兩山來水 其人多癯. 流水有聲 其人多癯. 花瓶水 飲之殺人 腊梅尤甚. 炊湯洗面 令人無顏色 洗體, 令人成癬 洗脚 令人疼痛生瘡. 銅器上汗入食中 令人生疽 發惡瘡. 冷水沐頭 熱泔沐頭 并成頭風 女人尤忌之. 水經宿 面上有五色者 有毒 不可洗手. 時病後浴冷水 損心胞. 盛暑浴冷水 盛傷寒. 汗後入冷水 成骨痺. 產後洗浴 成瘧風 多死. 酒中飲冷水 成手顫. 酒後飲茶水 成酒癖. 飲水便睡 成水癖. 小兒就瓢及瓶飲水 令語訥. 夏月遠行 勿以冷水濯足. 冬月遠行 勿以熱湯濯足.

《本草綱目》에는 물을 분류하여 크게天水 13種과 地水 30種, 도합 43種의 물의 종류를 나열하였으며 덧붙여 각각의 性味와 主治를 열거하여 놓았다.

10. 東醫寶鑑의 '水'¹¹¹⁾

《東醫寶鑑》에서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本草綱目》과 마찬가지로 물을 분류하여 34種으로 나누어 놓았으며 각각의 效能을 말하고 있다.

1. 井華水(새벽에 처음 길은 우물물)
2. 寒泉水(찬 샘물)
3. 菊花水(국화포기 밑에서 나는 물)
4. 臘雪水(선달 남향때 온 눈 녹은 물)
5. 春雨水(정월에 처음 온 빗물)
6. 秋露水(가을철 이슬물)
7. 冬霜(겨울에 온 서리)
8. 雹(우박)
9. 夏水(여름철의 얼음)

1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 678~680.

10. 方諸水(맑은 달빛에 비춘 조개에 받은 물)
11. 梅雨水(매실이 누렇게 된 때 온 빗물)
12. 半天河水(나무구멍과 참대위끝에 고인 빗물)
13. 屋霤¹¹²⁾水(벧집지붕에서 흘러내린 물)
14. 茅屋漏水(새이엉에서 흘러내린 물)
15. 玉井水(옥 나는 곳에서 솟는 물)
16. 碧海水(바다 짙은 물)
17. 千里水(멀리서 흘러 오는 강물)
18. 甘爛水(많이 취저어 거품진 물)
19. 逆流水(거슬러 돌아 흐르는 물)
20. 順流水(순히 흘러 오는 물)
21. 急流水(여울에 빨리 흐르는 물)
22. 溫泉(더운 샘물)
23. 冷泉(맛이 짠 찬 물)
24. 漿水(좁쌀죽 웃물)
25. 地漿(누린 흙물)
26. 潦水(산길에 비와 고인 물)
27. 生熟湯(끓인 물과 찬물이 반반 섞인 물)
28. 熱湯(덥게 끓인 물)
29. 麻沸湯(생삼 삶은 물)
30. 線絲湯(고치 다린 물)
31. 甌氣水(밥 짓는 시루 뚜껑에 맺힌 물)
32. 銅器上汗(동그릇에 맺힌 물)
33. 炊湯(묵은 숯물)
34. 六天水

112) 霤: 낙수물류.

III. 結 語

以上の 諸家文獻을 살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地球는 물로 가득찬 거대한 有機體로 生命은 이 물속에서 탄생했으며 生命의 恒常性 維持는 물을 確保 維持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2. 《管子》에는 물이란 땅에 있어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것으로 만물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3. 《老子》에는 萬物을 이롭게 하면서도 드러나 내세우지 않는 물의 倫理的, 道德的 德目을 말하고 있다.

4. 《錦囊經》에는 大地의 역동적 기운의 표현이 '水'라고 표현하여 天氣의 기운을 감무리하는 '藏風'과 아울러 '得水'가 風水의 기본임을 말하였다.

5. 《黃帝內經》에 나타난 '水'의 意味는 단순히 강이나 바다를 범칭하기도하고, 五行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腎藏을, 또는 水穀之精氣를 뜻하기도 하고, 눈물, 水腫病, 오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6. 《靈樞·經水》에는 人體經絡과 연관지어 땅에 물이 흐르듯이 人體라는 대지에 흐르는 물이 經絡이라는 概念으로 설명되고 있다.

7. 물의 種類에는 《本草綱目》에는 43種으로 分類하였으며, 《東醫寶鑑》에서는 34種으로 分類하고 있다.¹¹³⁾

113) 現代科學의 물의 分類에는 化學構造上의 分類法과 性質上의 分類가 있는데 化學構造上의 分類에는

18種으로 나눌 수 있으며 性質上의 分類는 눈 녹은 물, 빗물, 경수, 연수, 광천수, 여과수, 증류수, 이온수, 역삼투압수의 아홉가지로 나눌 수 있다. (天壽自然健康研究所 編著, 權肅杓 監修; 물, 서울, 공부방, 1995, P 30~34.) 또한 10가지로 分類하여 경수, 끓인물, 생수, 빗물, 눈 녹은 물, 여과수, 연수, 역삼투압수, 이온수, 증류수로 나누기도 한다. (앨런버너·칼슨웨이드; 물과 건강, 서울, 장라, 1994, P 42~46.)

參考文獻

1.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1.
2.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3. 漢文大系 卷9 老子翼,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4. 漢文大系 卷16 周易,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5. 漢文大系 卷21 管子纂註, 東京, 富山房, 昭和 59年, 卷第十四.
6. 許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 72.
7. 劉熙撰 王先謙撰集; 釋名疏證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民國 64.
8. 郭璞著 崔昌祚譯註; 青烏經 錦囊經, 서울, 민음사, 1993.
9. 天壽自然健康研究所 編著, 權肅杓 監修; 물, 서울, 공부방, 1995.
10. 진성일; 생활속의 과학이야기, 동아일보 95년 9월 5일.
11. 전무식; 6각수의 수수께끼, 서울, 김영사, 1995.
12. 이태형; 물길따라 내려온 물 이야기,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13. 엘런바너·칼슨웨이드; 물과 건강, 서울, 장락, 1994.
14. 李暉光著; 芝峰類說, 서울, 乙酉文化社, 1994.
15.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6.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7.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